



평범한 일상에 색(色)다른 자극을 주다

거리를 싱그럽게 수놓던 녹음이 어느덧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계절. 편집실에서는 가을을 맞아 일상
을 다채롭게 물들일 수 있는 색(色)다른 이야기들을
사보에 담았습니다. 삼표인들의 발랄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엿보며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올가을에는 <삼표가 GREEN 세상>
이 선물하는 찬란한 빛깔들로 삼표 가족들의 일상이
더욱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Special Theme	가을, 새로운 생각으로 물들다	03
테마 Talk! Talk!	삼표인의 창의적인 발상법 (주)삼표 시스템2팀 강성필 차장 (주)삼표산업 인천영업소 권순현 사원	04
테마 프리즘	옛 목욕탕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행화탕	08
Hot Issue	‘삼표와 그린(Green) 안전’ 캠페인	10
꿈과 꿈	삼표기초소재(주) 당진슬래그 공장 무지개 분임조	14
SOS	(주)삼표시멘트 안전 감사단 ‘SHE Auditor’	18
삼표의 어제와 오늘	삼표그룹 물류사업부, 종합 물류 No.1 기업을 향해	20
원데이 클래스	시어머니와 함께한 특별한 데이트 (주)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관리팀 김희영 사원	22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 지식	코스트코의 창 의 경영	24
포토 이벤트	창의력으로 만든 추억 한 컷	26
즐거운 밥상	든든한 마음 한 잔, 막걸리	28
Topic & News		30
삼표인 소식		36
Quiz & Notice		37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주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www.sampyo.co.kr
발행일 2017년 10월 16일(계간·비매물·사내한·통권 56호) **발행인** 남병규 **편집인** 이소정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전화** 02-6270-0767
편집·디자인 네오메디아 **인쇄** 영은문화사

가을, 새로운 생각으로 물들다

가을입니다. 출근길에 듣는 음악의 플레이 리스트를 바꿉니다. 이젠 정말, 가을이 시키는 일입니다. 이른 아침 집 앞을 나설 때 외닿는 차가운 공기, 몸을 살짝 움츠릴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긴장감, 여름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를 자연의 고운 색깔들…. 이렇게 가을의 감촉이 느껴지면, 저도 모르게 계절에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게 되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듣는 음악만 바뀌어도 아이디어의 결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면 그 근육은 아주 예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까지 금방 알아채니 말입니다. 익숙한 공간에선 익숙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늘 앉아 있는 사무실에서, 늘 같은 멤버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비슷비슷한 생각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 익숙한 환경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우리 머리는 신기하게도 그 차이를 알아채고 그동안 쓰지 않던 생각의 근육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 거창해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단순한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늘 듣던 음악이 있다면 살짝 바꿔보기. 매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 아이디어를 냈다면 내일은 근처 카페에 가서 생각해보기. 혹은 신선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 만나기. 이처럼 소소한 변화에서부터 새로운 생각은 시작되지요.

가을입니다.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 계절,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는 변화의 시간으로 삼는 건 어떨까요?

글 유병욱(TBWA KORE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생각의 기쁨> 저자)

삼표인의 창의적인 발상법

작지만 새로운 생각에서 변화와
혁신은 시작되는 법. 남다른 아이디어로
조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삼표인들의
창의적인 발상법을 공개한다.

글·사진 홍보팀 김선영

Q 삼표를 대표해 여러 특허를 등록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총 3가지 특허를 등록했어요. 첫 특허는 '이동식 슬럼프 및 플로우 테스트 장치'예요. 보통 콘크리트 반죽 질기*를 측정할 때 반죽이 무너진 높이를 사람이 직접 30cm 자로 측정해요. 그런데 이 장치는 레이저가 그 높이를 재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반죽 질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유구 개폐확인장치'입니다. 차량 주유통에 부착되는 이 장치는 운전자의 휴대용 단말기 또는 차량의 GPS와 연결되어 있어 주유 뚜껑이 열리면 실시간으로 본사에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유 뚜껑이 열렸는데 차량 위치가 주유소가 아니면 기름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균등배차관리 시스템'이에요. 운전자의 출근 및 대기 시간, 지체 시간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모든 차량을 균등하게

배차하는 시스템이죠. 출하실 직원이 배차 순서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면서도 공평한 배차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반죽 질기 : 흙이나 콘크리트의 수분이 많고 적음에 의한 연도(연하기 정도)

Q 이 중 우리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특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유구 개폐확인장치'와 '균등배차관리 시스템' 이 2가지입니다. 먼저, '주유구 개폐확인장치'는 우리 회사의 BCT(Bulk Cement Trailer) 차량에 활용되어 기름 도난 사고 방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치 도입 이후 BCT 차량의 기름 소비가 20% 가량 줄어들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굴지의 정유 기업으로부터 설치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었지요.

'균등배차관리 시스템'은 우리 회사의 전 레미콘 공장에 도입되어 공장의 레미콘 믹서트럭 차량 회전율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요. 현재 이 시스템은 고객사 주문 요청 1순위를 자랑할 정도로 당사 시스템 매출에 크게 기여 중인 효자 특허입니다.

유일무이(唯一無二)를 만들다! 특허왕 (주)삼표 시스템2팀 강성필 차장

평소 새로운 발명에 도전하며 사내에서 특허 박사로 소문난 (주)삼표 시스템2팀 강성필 차장!
그가 보유한 특허들은 우리 그룹 물류 IT 시스템에 적용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현장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수의 특허 출원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강성필 차장의 특허 취득 노하우를 들여다본다.



Q 처음 특허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와 지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려 섞인 시선과 함께 그만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특허 출원 준비부터 최종 특허 등록까지 보통 2~3년씩 걸리니까 고생길이 험하잖아요. 임춘식 대표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애칭이 있는데 바로 '불나방'입니다. 불나방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불에 뛰어들잖아요. 저도 무언가를 시작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성격이에요. 무엇을 하면 끝을 봐야 하죠. 이런 성격 덕분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어요.

Q 그렇다면 특허 준비 중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동식 슬럼프 및 플로우 테스트 장치'가 첫 번째 특허라서 그런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특허 취득을 위해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단계를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것들이 많아 주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해요. 그런데 당시 저의 의뢰를 받은 변리사가 다른 제품을

측정하는 레이저 장치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장치는 특허 등록의 가능성이 낮다며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카메라 및 블루투스, 모바일 연동 시스템 등 새 기능을 추가하여 이 장치가 평범하지 않은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 갔죠. 여러 번 보완하며 어렵게 출원한 특허라서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Q 본인만의 창의적 발상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전구에 불을 켜기까지 2,000번의 실패를 거듭한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단 한 번의 실패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도록 하는 2,000가지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라고요. 에디슨처럼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짚어내는 것.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칠전팔기의 자세. 이것이 저의 창의적 발상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1. 이동식 슬럼프 및 플로우 테스트 장치
2. 주유구 개폐확인장치가 탑재된 BCT 차량
3. 균등배차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 호출 표시기

180:1의 경쟁률! 그룹웨어 명칭 공모전 1등 (주)삼표산업 인천영업소 권순현 사원

18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룹웨어 명칭 공모전에서 당당히 1등을 거머쥔 권순현 사원! 그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그룹웨어 명칭 ‘블루샘(Blue-SAM)’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권순현 사원이 블루샘을 만들게 된 비화와 그만의 참신한 발상법을 들어본다.

Q 그룹웨어 명칭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 인가요?

평소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좋아 해요. 예를 들자면 지인들에게 영어 별명을 지어주거나 동네 사람들의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곤 해요. 대 학생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축제 주점이나 학과 행 사 이름을 제가 나서서 직접 만들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룹웨어 명칭 공모전은 ‘작명’이라는 저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참가하게 됐습니다. 삼표 가족 이 사용하는 그룹웨어에 제가 직접 지은 명칭이 적용 된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 설레는 마음 으로 지원했어요.

Q 그룹웨어 명칭 ‘블루샘’ 작명 과정을 들려주세요.

대학생 시절 건축학을 전공하면서 현장 실습을 여러 번 다녔어요. 건축 현장에서 수많은 레미콘 믹서 트럭을 봤는데 그중 삼표의 ‘블루콘’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량 색깔은 물론 차에 새겨진 ‘블루콘’이라는 글자까지



파란색이라 ‘삼표’ 하면 곧바로 ‘블루’가 연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블루’를 넣어 작명을 시작했어요.

‘샘’은 ‘샘터’를 뜻해요. 샘터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처음 땅 위로 솟아나는 곳이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많은 이들 이 찾는 곳이죠. 이러한 샘터가 그룹웨어와 닮았다고 생 각했어요. 그룹웨어도 삼표에 꼭 필요한 정보가 생겨나 는 곳이자 그 자료들을 공유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매일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샘을 붙였고 최 종적으로 ‘블루샘’이라는 명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Q ‘블루샘’이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어려움은 없었 나요?

보통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어떤 찰나에 떠오른다는 이 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블루샘 작명 과정은 그럴 지가 없었어요. 여러 단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조 합해보며 10개 정도의 명칭을 만드는 시행착오 끝에 블 루샘이 탄생했지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Everybody Makes Mistakes’인데요,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뜻이 에요. 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 속 에서 기발한 무언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블루샘 역시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한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새 명칭 ‘블루샘’이 적용된 그룹웨어 화면

Q 권 사원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부모님의 권유로 작곡을 배운 적이 있어요. 취업 준비에만 열중하 다 보니 사색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음악이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작곡 학원을 다니면서 거창하지는 않지만 노래 를 몇 개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 작곡했던 경험이 저도 모르는 사 이에 창의력을 많이 발달시켰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참 감사하죠.

Q 삼표 가족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주신다면?

일상 속의 소소한 변화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길 에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고 자전거 손잡이 색깔을 수시로 바꾸거나 독특한 디자인의 단 추를 구입해 옷의 단추를 교체하고는 해요. 이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일으킨 새로 운 기분이 새로운 발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삼표인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 다시 피어난 목욕탕

오래되고 넓은 공간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끈다.
오래된 목욕탕에
'예술'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은 곳, 서울 아현동
'행화탕'을 소개한다.

글 임이안 사진 제공 축제발전성



이런 경험 처음이야, 예술 목욕

1958년에 문을 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이었던 '행화탕'의 '행화'는 살구꽃을 의미한다. 아현동 일대에 살구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50여 년간 주민을 위한 대중탕이자 사랑방 역할을 했던 이곳은 2000년대 들어 아현동 일대가 재개발되며 문을 닫았다. 아무도 머물지 않는 공간으로 방치된 채 재개발을 기다리던 이곳에 제2의 삶을 선사한 것은 축제·공연 기획사인 '축제행성'의 공동대표 서상혁 씨와 주왕택 씨. 접근이 편리하고 임차료가 저렴한 작업실을 찾던 그들에게 행화탕은 딱 적합한 공간이었다. 한때 성업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크고 견고한 목욕탕 내부와 그 뒤편으로 이어진 주택까지 포함해 행화탕의 공간은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보였다. 사람 간 소통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서상혁 대표는 이곳을 여러 기획자가 교류하며 전시나 공연을 선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연극, 건축, 시각예술 등 여러 분야의 기획자들이 모였고 2016년 5월 행화탕 개업식을 기점으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부터 일부러 찾아오는 방문객까지 행화탕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상혁 대표도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고, 과거에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던 목욕탕을 재현하듯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예술로 마음의 때를 벗기고 탈의실에서 오가는 대화처럼 편안함을 즐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간헐적으로 예술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보다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5월부터 10월까지(7월 제외)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예술로 목욕하는 날'을 기획해 지역주민과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에는 입구 한쪽에 카페를 열었고, 개업식을 잔치처럼 벌여 누구든 들어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 지난 5월 '예술로 목욕하는 날'에서 선보인 신어송라이터 곽푸른하늘과 김정균의 공연
2.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으로 가득한 행화탕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공간의 변신

폐업 후 재개발을 기다리던 행화탕은 노쇠한 공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현동 주민들의 지난 추억과 정(情)이 담긴 곳이었다. 그래서 이곳의 리모델링은 공간에 스민 역사를 살리고자 최소한으로 이뤄졌고 탈의실, 목욕탕 등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이 몸단장한 행화탕에는 예술적 감성이 충만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예술 목욕은 축제와 닮은 점이 많아요. 일탈과 회복을 선사하고 다시금 기대를 심어주죠. 이곳을 찾은 모든 분들이 예술 목욕을 통해 분주한 삶을 잠시 잊고, 서로 등을 밀어주듯 편하게 소통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이 확정된 공간으로 언젠가 허물어질 운명이지만 서상혁 대표는 행화탕을 방문한 이들이 한바탕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채워나갈 계획이다. 행화탕에서의 예술 목욕이 궁금하다면 페이스북(facebook.com/haenghwatang)에서 근황을 접할 수 있다. 단, 예술 목욕을 희망한다면 유의할 점이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둘 것. 나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순간을 즐길 것!



3. 지난해 행화탕 개관식 때 선보인 설치 퍼포먼스 '수중인간'
4. 행화탕 카페 '행화커피'의 개업식 축하 공연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다 ‘삼표와 그린(Green) 안전’ 캠페인

‘안전제일(安全第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이다. 특히 10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그룹에게 안전제일이라는 표어가 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주)삼표 사회공헌팀과 (주)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 지난 8월 25일 레미콘 차량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팀과 레미콘사업부가 뜻을 하나로 모았다.

글 홍보팀 이소정 사진 전문식(Day40 Studio)



1



삼표와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의 특별한 약속

“하나, 출발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둘, 공회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삼표산업 풍납공장 마당이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28명의 레미콘 차주연합회 회장단. 또박또박 힘주어 다짐서를 되뇌는 회장단의 얼굴에는 안전운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날 풍납공장에는 삼표산업 홍성원 대표를 비롯해 정재찬 중부지역장, 임완기 풍납공장장과 레미콘차주연합회 회장단 등 약 40명의 임직원이 자리했다. 이들이 한 데 모인 이유는 바로 친환경·안전운전 캠페인 ‘삼표와 그린(Green) 안전’ 서약식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바로 전날까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날 풍납공장의 하늘은 맑고 깨끗했다. 안전운전 서약부터 레미콘 차량의 측면 반사띠 부착식까지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의 얼굴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굳은 의지가 느껴졌다.



2

1. 측면 반사띠를 부착한 레미콘 차량
2. 레미콘 차주연합회 회장단을 대표해 유성준 연합회장이 안전운전을 서약하는 모습



레미콘 차량은 우리 그룹의 육상 운송 수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우리 그룹은 레미콘 차량의 안전장치를 개선, 보완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통해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삼표의 세심한 배려

당사는 사업 특성상 대형 차량을 이용한 원재료 공급이 많은 편. 그중에서도 레미콘 차량은 월 평균 운행 대수가 1,000여 대에 달해 당사 육상 운송 수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레미콘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차량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3.3배나 높은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국에서 매달 1건 이상의 레미콘 차량 사고 기사가 보도됐다. 때문에 사회공헌팀과 레미콘사업부는 당사의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업계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친환경·안전운전 캠페인 '삼표와 그린(Green) 안전'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에서 사회공헌팀과 레미콘사업부가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레미콘 차량의 측면 반사띠 부착이다. 차량 측면에



1. 친환경·안전운전을 위한 서약서
2. 우리 그룹은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안전 조끼를 지급했다
3.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자며 인사말을 건네는 홍성원 대표
4.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던 '삼표와 그린(Green) 안전' 캠페인 현장

반사띠를 부착한 것은 우리 그룹이 업계 최초인데, 이는 어두운 골목에서나 야간 주행 시 레미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과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레미콘 차량의 후면 범퍼는 반사띠 의무 장착 대상이나 측면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측면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레미콘물류운영팀 정승운 부장의 설명. “야간 운행이 많은 레미콘 차량에 측면 반사띠를 부착할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레미콘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에 대형 충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 측면 반사띠를 부착하게 되었다”며 정 부장은 측면 반사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이 보다 쉽게 안전 수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때 사회공헌팀과 레미콘사업부는 ‘휴대성’을 가장 고려했다. 휴대하기 좋아야 수시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로 제작했는데, 덕분에 기사들은 차량에 매뉴얼을 비치해두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되었다.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조끼도 지급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수 제작한 안전 조끼는 양어깨와 뒷면에 반사띠가 부착되어 야간 작업이나 차량 승하차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안전운전 서약식을 시작으로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는 전 레미콘 사업장 차량 운전기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회공헌팀과 레미콘사업부는 레미콘 차량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 그룹과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안전한 사업장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뭉친 여섯 명의 도전기

지난 8월 31일, 삼표기초소재㈜ 당진슬래그 공장 무지개 분임조가 '제43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충북 청주를 찾았다. 4박 5일간 진행된 이번 전국 대회에서 무지개 분임조는 285팀의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당당히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호에서는 끈끈한 동료애로 뭉친 무지개 분임조의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글 홍보팀 이소정

무지개 분임조,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동상' 수상



(왼쪽부터) 삼표기초소재㈜ 당진슬래그 공장 품질관리팀 윤인근 대리, 김민정 사원, 이창진 팀장, 강준식 대리, 김영후 사원, 윤재철 사원

구성원의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창의적인 분임조 활동

첫 출전에 이룬 값진 성과

전운이 감도는 제2발표장. “대통령상 동상은 삼표기초소재 당진슬래그 공장 무지개 분임조입니다!” 6명의 분임조원은 팀명이 호명되자 그제야 안도의 숨을 뱉었다. 분임조 조장을 맡고 있는 김영후 사원은 이날이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올해로 43회를 맞이한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각 산업 분야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 우수 사례를 선발하는 일명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전국분임조대회의 경우 LG그룹, SK그룹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육군, 공군까지 참가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폭이 넓고 다채롭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팀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전국대회는 예선 수상팀들의 최종 순위를 가르는 '순위 결정전'의 성격을 띠는데 무지개 분임조는 지난 5월에 열린 충남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덕분에 이번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대회를 주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16만 건의 현장 문제가 분임조 경진대회를 통해 해결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연간 약 4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돼 이 대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임조는 총 6만여 개, 그중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팀은 0.5%도 되지 않는다. 무지개 분임조는 사외 대회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더니, 이어 전국대회에서도 서비스/사무간접 부문 '대통령상 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당진슬래그 공장 품질관리팀 6인방, 무지개 분임조로 하나 되다

무지개 분임조의 첫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기초소재 내에는 명목상으로 분임조 제도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임직원의 호응도가 낮아 실질적인 활동이나 운영이 어려웠다. 이후 지난 2015년, 이성연 부사장이 기초소재 대표로 선임되면서 임직원들의 현장 문제 해결 능력 강화와 자기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임조 활동이 적극 장려되었다. 분임조 활동을 통해 직급 간, 부서 간, 계층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성연 대표를 주축으로 기초소재에 11개의 분임조가 편성됐고, 무지개 분임조의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되었다.



1. 아이디어 회의 중인 당진슬래그 공장 무지개 분임조
2. 업무 효율을 높인 무지개 분임조의 제안 활동

활발한 제안 활동으로 제품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다



1

당진슬래그 공장 무지개 분임조는 사외 대회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더니, 이어 전국대회에서도 서비스/사무간접 부문 ‘대통령상 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업 방식을 개선하다

무지개 분임조가 이번 전국대회에서 발표한 주제는 ‘철스크랩 분석 방법 개선으로 고객 불만족률 감소’였다. 이는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선 형광분석기) 도입 이후 시멘트, 슬래그 파우더 등 분체 함량 검사는 용이해졌으나, 철분을 90% 이상 함량한 물질인 철스크랩 등의 원료 분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김영후 사원의 제안이었다.

“기존에는 철스크랩 함량을 분석할 때 직원들이 직접 화학약품을 이용해 원재료를 분석했는데, 1건당 800분이나 소요되어 불편이 컸어요. 이번 분임조 활동을 통해 X-RF를 이용한 방식으로 개선해 분석 매뉴얼을 제작하면서 분석 시간이 무려 1/9로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졌죠.”

또 기존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던 시료 분석을 공장에서 직접 하게 되면서, 네비엔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의 시험 의뢰비도 1/3 수준으로 절감되었다. 무지개 분임조는 이번 대회의 준비 과정 및 결과를 그룹 내 타 공장과도 공유하고자 강의 교안을 만들고 있다. 이 교안으로 향후 무지개 분임조원들이 직접 강의까지 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교안이 그룹 내 타 계열사에서도 활용되어 우리 그룹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이드 직급도 제각각인 무지개 분임조의 이번 전국대회 대통령상 동상 수상은 6명의 분임조원이 함께 빚어낸 값진 성과다. 앞으로도 무지개 분임조는 제품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작업 개선 방안들을 제안할 생각이다. 무지개 분임조를 필두로 우리 그룹의 품질 개선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

1.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해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얼굴들
2. 이번 대회에서 무지개 분임조는 ‘철스크랩 분석 방법 개선으로 고객 불만족률 감소’라는 주제를 발표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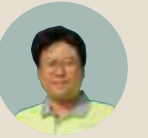


다양한 색깔로 뭉친 무지개 분임조의 결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현장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해외 참가자들이 자국어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국제대회에 참가한 기분마저 들었죠. 분임조가 활성화된 회사들에게도 도대회나 전국대회 참가는 높은 벽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분임조가 첫 출전에 도대회와 전국대회 출전권을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전국대회 대통령상 동상 수상은 ‘무지개’라는 분임조 이름처럼 색깔이 다양한 우리 분임조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진 품질관리팀장**

동료들과의 소통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

“사내 경진대회와 충남도대회,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달라 원고 및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다소 힘이 들었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무지개 분임조 전원이 함께 과제를 해결 및 개선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분임조원들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무지개 분임조의 이번 전국대회 출전 및 대통령상 수상이 사내 다른 분임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강준식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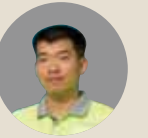


팀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빛난 시간

“분임조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열정으로 감내할 수 있었고 결국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수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무지개 분임조 구성원 모두는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분임조 활동에 정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협업과 소통을 통해 삼표기초소재의 미래가 되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윤인근 대리**

한 단계 도약한 자랑스러운 순간

“사원이지만 이번 분임조 활동에서 조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분임조장으로서, 발표자로서 책임감이 막중했는데 전국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주제로 선정되어 더욱 뿌듯하고, 이번 활동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저 역시 그동안 배우고 습득하며 느낀 것들을 공유하여 우리 그룹의 분임조 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후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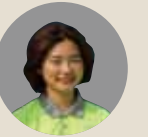


더 큰 열정으로 정진 또 정진

“이번 분임조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미흡하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저희 분임조원들의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분임조원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사내 대회부터 전국대회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삼표기초소재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도전과 열정으로 분임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재철 사원**

신입사원의 패기로 힘차게 도전!

“이번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은 삼표기초소재 직원으로서도 뜻깊은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임에도 발표자로 선정되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팀 선배님들께서 잘 지도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취득했던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QC기법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분임조 전원 참가’, ‘개선 활동의 습관화’와 같은 품질 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분임조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정 사원**



현장을 지켜라! 사내 안전 전문가 집단 ‘SHE Auditor’

(주)삼표시멘트에 12명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감사단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Auditor’가 뒀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 아래 전국 16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매월 열리는 안전보건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안전에 대한 사명감으로 뭉친 이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소개한다. 글·사진 홍보팀 김선영

현장에서 답을 찾다

Auditor(감사),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역할과 임무에서 무게가 느껴진다. 특히 복잡한 설비와 구조물로 가득 찬 공장을 감사하기 위해선 남들보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수일 터. 실제로 현장에서 평균 근속 연수 12.4년의 이력을 가진 이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현장 전문가, 삼표시멘트 안전 감사단 Auditor들이다.

“안전은 깊이가 있어야 해요. 현장에서 작업 공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 수행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숨은 위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죠.”

직접 멤버를 구성한 환경안전팀 박재호 팀장이 설명하는 Auditor들은 삼표시멘트에 공채로 입사해 10년 이상 생산 관련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온,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현장 전문가 중 전문가이다.

Auditor들은 현장 감사를 통해 공장 내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주요 사업장인 삼척공장을 비롯, 그 외 15개 지방 사업장에도 수시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 왕성한 감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경안전팀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



1. 2. 안전 감사단의 첫 점검 내용을 발표한 안전보건회의 현장
3. 우리 그룹의 안전 파수꾼, 안전 감사단 ‘SHE Auditor’



(뒷줄 왼쪽부터) 생산2팀 박정운 과장, 기계팀 이규선 과장, 전기팀 장동진 과장, 환경안전팀 김수정 과장, 기계팀 고준호 과장, 전기팀 송창근 과장
(앞줄 왼쪽부터) 환경안전팀 조경찬 사원, 제품팀 최수영 과장, 환경안전팀 박재호 부장, 자원팀 조강성 과장, 생산팀 조희석 과장

합 교육을 했었으나, 지금은 한 명의 Auditor가 근로자 7~8명을 교육하는 소규모 미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가 가능해졌다. 이곳에서 Auditor들은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살아있는 현장 정보를 얻고, 현장 경험으로 다져온 안전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발견 즉시, 지체 없이 해결한다!

화요일 오후 3시, 삼척공장 2층 대강의실 문 밖으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Auditor들을 비롯해 공장장 및 관련 부서 임원, 부서장들이 모인 이곳은 삼표시멘트에서 매월 개최하는 안전보건회의. Auditor들이 결성되어 감사 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점검 내용을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이 시설물은 설치된 시기가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고 작업 중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Auditor는 제품팀 최수영 과장과 기계팀 고준호 과장. 두 사람이 발견한 위험 요소는 모두 23건으로 청소 및 정리·정돈, 신규 표지판 설치 등의 간단한 사안부터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산 설비, 현재 공장에 필요한 신규 시설물까지 그 종류와 범위는 매우 다양했다.

두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Auditor를 포함해 공장장과 임

원, 부서장들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띤 논의와 토론을 이어간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비용을 산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세워 나간다. 이처럼 Auditor들은 위험 요소가 발견된 즉시 모든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함께하는 안전 개선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내 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는 사명감

“안전이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관 부서와 협업해 유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에 옮길 때 힘이 실리기 마련이죠.”

Auditor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의 원천은 일종의 사명감에 가까웠다.

“처음 제가 Auditor로 선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담감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두를 위한 안전이라면 저 하나 희생해서라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이 와서 일한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요.”

결의에 가득 찬 표정의 Auditor들이 손을 모아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삼표시멘트 16개 전 사업장이 국내 최고의 무재해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삼표그룹 물류사업부 종합 물류 No.1 기업을 향하여

삼표그룹의 전신 삼강운수는 1960년대 연탄 수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물류 회사이다. 삼강운수의 물류사업을
근간으로 성장해온 물류사업부는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날 그룹이 생산하는 전 제품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물류사업을 넘어 종합 물류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삼표그룹 물류사업부의
어제와 오늘을 따라가본다. 글 홍보팀 김선영



그룹 역사의 모태, 삼강운수

삼표그룹의 전신은 1966년 12월 1일 강원산업그룹이 설립한 삼강운수다. 당시 700여
대의 트럭을 보유하고 있던 삼강운수는 강원탄광이 생산하던 삼표연탄을 수송하는
물류 회사였다. 그 시절 연탄은 제품 특성상 계절별로 수송 차량의 수요에 큰 차이가
있었다. 성수기인 겨울철에는 수송 트럭을 풀가동해도 모자라지만 비수기인 여름철
에는 성수기의 30%도 가동하지 못했다. 이에 정인욱 선대 회장께서는 트럭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수기에는 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퍼 올려 건설 현장에 공
급하는 골재 사업을 시작했다. 겨울에는 석탄 운송을, 봄가을에는 골재를 실어 나르
면서 수송 트럭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육송을 넘어 해송으로... 건자재 공급의 길을 열다

이후 삼강운수는 삼표산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다양한 건설기초소재 사업을 영위하며
종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특히 1991년 업계 최초로 100여 대의 덤프트
럭(Dump Truck, D/T)을 대량으로 수입, 직영 차량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자재 물류 시
장의 파이를 키우며 선두 주자로 발돋움한다. 외제 화물차가 드물었던 90년대에 우리
그룹의 빨간색 스카니아 트럭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는 즉시 삼표가 연상될 정도로 상당한 홍보 효과를 자랑했다.

레미콘 믹서트럭(Mixer Truck, M/T) 역시 1977년 삼표산업 풍납공장과 성수공장을
설립해 레미콘 사업을 개시하면서 우리 물류사업부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그룹은 레미콘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믹서트럭을 운영했다. 외
부 운송사와 지입 차량 운영으로 시작했던 레미콘 물류사업은 훗날 280여 대의 직영
차량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인 물류 운송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삼표그룹 물류부
문의 핵심 사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벌크트레일러(Bulk Cement Trailer, BCT)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그룹이 업계 최초로
폐기물에 불과했던 플라이애시를 레미콘 대체 원료로 활
용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시를 공장까
지 운반하기 위해 BCT 차량을 도입했다. 플라이애시 운
송사업 역시 업계 최초였기에 물류사업부는 여러 시행
착오를 거쳐야 했지만 이전의 D/T와 M/T 물류 운영 경
험을 살려 성공적으로 플라이애시를 운송할 수 있게 되었
고, 향후 슬래그 파우더와 슬래그 시멘트까지 운송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이후, 2009년에는 제천 파일 공장을 설립하며 PC(Precast
Concrete)와 콘크리트 파일(Concrete PILE) 제품을 운
반할 수 있는 평판트레일러(Flat Car, F/C) 운송 능력까
지 갖추게 된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바닷모래 공급을 위하여 2003년 모래
바지선과 예인선을 1척씩 구입해 해송 물류 사업의 닻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4년 뒤인 2007년 선박 2척을 증설해
총 4척의 모래 운반선을 거느리게 된다. 2012년에는 당진
슬래그 공장 가동과 함께 슬래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
래를 운송하던 기존 선박 2척을 이용해 현대제철 수재
슬래그를 당사 슬래그 공장으로 운반함으로써 해상 운송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처럼 물류사업부는 우리 그룹의 신사업 진출에 발맞춰
모든 제품을 적시적기에 원활하게 운송함으로써 각 사업
부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조력자로 입지를 다지게 된다.

P R E S E N T

건자재 운송을 넘어 종합 물류 회사로 비상하다

50년 전 700대의 트럭으로 시작했던 삼표그룹 물류사업
부문은 현재는 총 2,600대의 D/T와 M/T, BCT, F/C 차량
과 30여 척의 선박을 거느리며 종합 물류 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건자재 물류 시장 1위, 수도권 기
준 차량 운영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하게 된다.

물류사업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그룹의 제품뿐
만 아니라 타사의 석회석, 슬래그 등의 제품을 운반하는
외부 물류 운송까지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
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해송 물류에 있어서도 직영 선박 운영을 통해 경쟁력 강
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래 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운
송을 위해 9대의 선박을 대여하여 운영해왔으나 작년부
터 유진호와 정진호, 리나호 총 3척의 시멘트 전용선을 추
가로 구입해 운영하면서 자체 운송 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시멘트 이외의 제품도 운반할 수
있는 일반 화물선인 진안호를 신규 출항함으로써 제품 간
영역을 뛰어넘는 물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 그룹의 최첨단 IT 기술력을 접목해 차별화된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역시 물류사업부만의 경쟁력이
다. 특히나 업계 최초로 화물 차량에 GPS를 도입, 모바
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를
접목한 첨단 물류 관제 시스템을 통해 산지부터 공장까
지 제품 운송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적시적기 배차
와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도 삼표그룹의 물류사업부는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
화하기 위해 전 계열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룹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
는 물류사업부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종합 물류 1등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주)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관리팀
김희영 사원

시어머니와 함께한 특별한 데이트

지난 2016년, (주)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관리팀 김희영 사원과 정민숙 씨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인연으로 가족이 되었다. 두 사람에게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꽃보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특별한 데이트를 소개한다.

글·사진 홍보팀 이소정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데이트여서일까?
김희영 사원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이번 데이트가 기대되기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며느리와 단둘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설렘 가득, 꽃보다 가족

높아진 하늘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의 어느 오후, 김희영 사원이 시어머니 정민숙 씨와 함께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화환 모양의 생화 장식품 ‘리스’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오늘의 데이트는 김희영 사원이 시어머니를 위해 사보 편집실에 사연을 보내면서 성사되었다. 애교가 없어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가슴을 무겁게 하던 차에 작은 용기를 내어 꽃꽂이 이벤트를 신청했다.

“연애할 때는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와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느라, 주말에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시어머니와 단둘이 외출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전부터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었는데, 이벤트 공지 글을 보고 ‘이거대!’ 싶었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데이트여서일까? 김희영 사원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이번 데이트가 기대되기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정민숙 씨 역시 며느리와 단둘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다른 듯 닮은 우리

두 사람이 만든 리스를 보면 각자의 성격이 보인다. 스킨스쿠버, 서예 등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는 정민숙 씨는 시원시원한 성격답게 인터뷰도, 클래스도 간단히 해치웠다. 플로리스트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선택한 꽃도 큼직 큼직하다. 그에 반해 세심한 성격인 김희영 사원이 만든 리스는 비교적 작은 장미로 꾸며 아기자기한 느낌이다. 꽃꽂이를 처음 해본다는 김희영 사원은 성취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은은하게 퍼지는 풀 내음이 참 좋단다.

이렇듯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은 신기하게도 취향만큼은 통하는 점이 많다. “저희는 스타일이나 식성까지 판박이에요, 희영이와 함께 손녀 옷을 고르러 가면 마음에 드는 옷이 서로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정말 깜짝 놀라곤 하죠.” 김희영 사원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 애정이 가득하다.

첫 데이트가 만족스러웠는지, 김희영 사원과 정민숙 씨는 올 가을엔 함께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때로는 모녀지간처럼, 때론 오랜 친구처럼 여행 내내 서로를 살뜰히 챙길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들이 이날 만든 원형 리스는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영원’을 상징한다. 김희영 사원과 정민숙 씨가 만든 리스처럼,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가족의 행복도 영원하기를 바란다.





코스트코의 창의 경영

최저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차별화 전략으로 남다른 것을 팔거나 남보다 싸게 팔면 된다. 세계적인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COSTCO)는 '가격 전략'의 대표 주자다. 창의적인 가격 전략으로 유통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코스트코의 경영 철학을 배워본다.

글 곽숙철(CnE 혁신연구소 소장)

전략 하나! 회원제와 파격적인 이중 보증제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 사람들은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면 '다른 어떤 곳보다 쌀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코스트코가 철저히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도 이러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하다.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려면 연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확실한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이 확보된 만큼 최저 가격으로 보답한다는 철학이다. 회원이 되면 낮은 마진율을 통해 확보된 싸고 질 좋은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고객 비율이 90%가 넘는다. 그만큼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기업이다.

코스트코는 광고에 돈을 쓰지 않는데 오직 고객과 직원들의 입소문에 의지한다는 원칙이다. 흔한 전단지 광고도 없다. 코스트코가 광고 없이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회원제의 마법'이다. 연회비를 내는 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본전을 뽑기 위해 '대량으로 많이 구매할수록 이득'이라는 인식을 갖는데 이 역시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또 코스트코는 파격적인 환불 정책인 '이중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연회비를 전액 환불하는 '회원 보증제'와 상품 구입 후 상품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액 환불하는 '상품 보증제'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전략 둘! 1국가 1카드 원칙

최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코스트코는 일반 상품 마진율 14%, 자체 상표인 커클랜드(Kirkland) 마진율 15% 원칙을 지키고 있다. 코스트코 창업주 시네갈(James D. Sinegal)은 "마진율을 16%나 18%로 인상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너져내릴 것"이라며 창업 때부터

이 원칙을 강조해왔다.

최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코스트코의 또 다른 전략으로 '1국가 1카드 원칙'을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현금과 수표, 상품권 외에 신용카드로는 코스트코와 계약을 맺은 한 회사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실제로 코스트코에서 취급하는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대개 일반 신용카드의 1/3 수준이다.

전략 셋! 품목 수 줄이고 자체 브랜드 개발

아무리 매장이 커도 세상의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는 법. 어떤 상품을 판매하느냐가 할인점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코스트코는 고객 만족과 최저 가격 유지라는 원칙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데, 취급하는 상품 수가 일반 할인점의 1/10도 안 되는 4,000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특정 카테고리당 소수의 상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 할인점이 성장 단계별(4)X제품 라인별(3)X포장 단위별(3)로 36가지 기저귀를 취급한다면, 코스트코는 성장 단계별로 4가지만 취급하는 식이다. 코스트코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대량으로 계약해 공급가를 최대한 낮춘다. 게다가 상품의 포장 단위가 매우 큰데, 이 또한 재고 회전율을 높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코스트코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1996년부터 커클랜드라는 브랜드의 자체 개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과자, 음료, 생수, 커피, 피자, 가정용품, 사료, 여행용 가방, 전자 기기, 의류, 건과류, 세제 등 가정에서 필요한 거의 전 품목을 다룬다. 커클랜드 제품의 경우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마진율 15%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창의력으로 만든 추억 한 컷

일상에서 발휘한 기발한 생각이 큰 웃음과 행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삼표 가족의 행복한 한때, 기발하고 톡톡 튀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사진을 만나봅니다. 정리 편집실



대 상

중학교 첫사랑과 6년 연애 끝에 올해 4월 22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부부로서 첫 여름휴가를 삼척 해변으로 떠났죠, 사랑 하는 아내와 제가 좋아하는 바다 그리고 아이언맨이 함께한 부러울 것이 없는 무척 행복한 여름휴가였습니다.
㈜삼표시멘트 환경안전팀 이현무 사원

지난 어린이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캄보디아 가이드가 찍어줬는데요, 영화 <투레이터> 촬영지에서 마주친 엉덩이 모양의 나무를 보고 장난기가 발동! 동침하는 저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삼표레일웨이(주) PC_Pile공사팀 원대한 사원



금 상

은 상



2년 전, 친구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가서 여러 번 도전 끝에 얻은 '해리 포터' 사진입니다. 사진처럼 멋지게 날아오르는 삼표인이 되겠습니다!
㈜삼표 삼표SM팀 정선민 사원



무더위 속 메마른 목젖에 한줄기 희망이 쏟아지다! 여름아 안녕~
㈜삼표산업 남서영업소 장성현 대리



연애 시절, 연천 구석기공원에서 공룡 뼈에 얼굴을 넣고 장난을 치는 엉뚱한 아내입니다.
㈜네비엔 소각영업팀 한정협 대리

동 상



영국 브라이튼 세븐시스터즈에서 친구와 한 컷
㈜삼표산업 개발2팀 이병현 사원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지인 괌에서 두 딸이 대포를 쏘고 저는 인간 포탄이 되었습니다.
㈜삼표 시스템2팀 김상동 차장



신혼여행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입니다. 푸켓의 좋은 기운을 담은 장풍을 크게 맞았습니다!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류현 사원



입사 전 얻은 휴가로, 새 마음 새 뜻을 다지며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구룡반도에서 아홉 마리 용의 기운을 담은 용트림~
㈜삼표산업 당진공장 강승식 사원



인형을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조카. 인형에게도 이불을 깔아주고 본인도 인형처럼 자고 있네요. 조카가 인형나라에 들어간 것 같지 않나요?
㈜네비엔 당진슬래그 공장 손보배 사원



든든한 마음 한 잔, 막걸리

제법 매서워진 바람을
안줏거리 삼아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
피우기 좋은 계절. 이런 날
정겨움을 더해주는 건
한 모금에 코끝 찡한 맥주도,
자칫하면 눈앞이 핑 도는
소주도 아니다. 보양 자태
드러내며 그저 부드러이
벅속을 채워주는 소박한
한 사발, 막걸리다.

글 백현주
참고 도서 <한국인에게 막걸리는
무엇인가> 정혜경·김미혜 저

함께한 세월만큼 이름도 가지각색

색깔이 하에서 백주(白酒), 한편으론 탁하고 흐려 탁주(濁酒)라 불렸고 소박한 서민의 술이라는 뜻의 박주(薄酒)라고도 했다. 농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술이라고 해 농주(農酒)라 불리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랴. 제주도에서는 ‘술의 어머니’, 즉 모주(母酒)라 하며 서민들의 마른 목을 축여줬다. 큰 술잔으로 마시는 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대포라는 말 역시 주인공은 같다. 바로 막걸리. 이렇게나 많은 이름을 가진 걸 보니 막걸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삶과 동행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민족의 정서를 담다

막걸리는 찹쌀, 쌀, 보리, 밀 등을 주원료로 누룩을 첨가, 발효시킨 후 물을 더해 거른 것을 말한다. ‘막걸리’란 이름이 바로 여기서 유래됐다고 전해진다. ‘막’은 ‘마구’, ‘거칠게’라는 뜻을, ‘걸리’는 ‘거르다’란 의미로 한마디로 마구 거른 술이란 얘기다. 그만큼 서민들이 얻기 쉬웠던 술. 태생적으로 서민과 가까웠던 이 술과는 달리 고려 사람들이 마셨던 청주는 ‘악술’이라 칭하며 비싼 몸값을 자랑했다. <동국이상국집>과 같은 당시 책에는 청주를 맵쌀과 누룩을 섞어 발효시키면 나오는 ‘술밀’을 눌러서 짜낸 술이라고 묘사했는데 한 번에 겨우 4~5병밖에 얻지 못했다. 그 탓에 서민들은 쉽게 접할 수가 없었고 대신 서민들은 이 술밀을 체로 밟쳐 걸러내면 나오는 탁주를 마셨다. 이것이 막걸리다. 그렇다고 알볼 일은 아니다. 고문헌 특히 한시에서 막걸리로 추정되는 술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양반들도 막걸리를 즐겨 마시며 시로 읊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가히 노동주이자 풍류주로서 우리 민족에게 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만하다.

“시골 막걸리 시금털털하긴 해도 / 그 속에 묘한 맛 들어 있나니 / 한 잔 기울이면 단박 얼큰해 / 몇 잔까지 마실 필요 아예 없다오”

조선시대 문신 장유의 시문집인 <계곡집>에 실린 글의 일부다. 약 4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막걸리는 요란하지 않고 수더분하게 마시는 이의 벅속을, 아니 사실은 가슴을 풍요롭게 위로해주고 있다.

지역별 대표 막걸리

가평 원조 잣 막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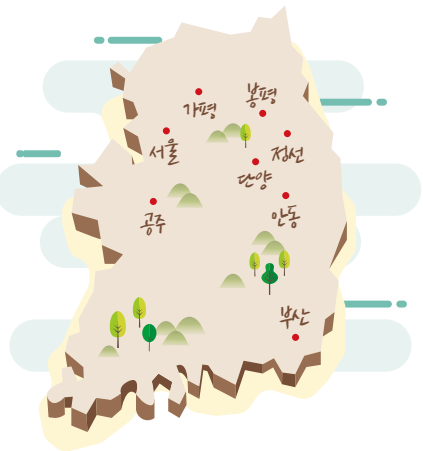
가평의 특산물인 잣을 첨가해 고소함과 풍미가 가득한 막걸리다.

서울 장수 생 막걸리

국내산 백미를 이용해 영양이 풍부하고 자연 발효로 감칠맛과 청량감이 일품이다.

공주 밤동산 알밤 막걸리

고소한 맛과 향이 특징. 알밤과의 조합이 막걸리를 더욱 부드럽게 해준다.



봉평 메밀 막걸리

메밀을 주재료로 만들어 일반 막걸리보다 칼로리가 낮고 소화 흡수가 좋다.

정선 아우라지 옥수수 막걸리

특산물 옥수수를 이용해 만들었다. 다른 막걸리에 비해 두통이 적다.

단양 소백산 오곡 진상주

발효한 술임을 첨가해 향이 은은하고 소백산 탄산수를 넣어 톡 쏘는 맛이 특징이다.

안동 화곡 순쌀 막걸리

소백분이 적게 첨가돼 약간의 알싸한 맛이 매력적이다.

부산 금정산성 막걸리

은은한 향과 구수한 맛이 난다. 전통 양조 방식으로 만들어 향토 민속주로 지정됐다.

TOPIC 1



(주)삼표산업, 한국품질만족지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부문 7년 연속 1위 선정
(주)삼표산업은 지난 9월 14일 한국품질만족지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 한국 품질만족지수(KS-QEI, Quality Excellence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소비자와 해당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품질 만족도 종합 지표이다.
(주)삼표산업은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보다 강화된 자체 품질 기준(SKs)을 구축해 엄격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각 사업장의 전산 시스템과 설비, 품질 표준화를 관리·운영한 결과 1위에 선정되었다.
(주)삼표산업 홍성원 대표는 “당사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전국 현장의 임직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최상위 제품 생산을 위한 R&D 투자를 아끼지 않고 레미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OPIC 2



(주)네비엔 영천사업소, FLUFF 출하 기념식 행사 개최
(주)네비엔 영천사업소는 지난 8월 25일 FLUFF 공장을 짓고 9월 4일 첫 출하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출하식에는 (주)네비엔 박영동 대표와 국만호 상무, 양재훈 상무 등 임직원 35명이 참석했다.
FLUFF란 시멘트 공장에서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및 선별해 고객사인 시멘트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생산한 재활용 제품이다.
이번 FLUFF 출하를 시작으로 (주)네비엔 영천사업소는 기존에 운영하던 가연성 폐기물 소각 및 폐토사 정제 사업, 슬러지 건조 사업에 FLUFF 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날 출하식에 참석한 (주)네비엔 박영동 대표는 “FLUFF라는 신사업에 진출하기까지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만큼 첫 제품 생산을 마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제 영천사업소는 하나의 공장에서 4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최고 효율의 종합 재활용 공장으로 발돋움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삼표

㈜삼표 인재개발팀, 그룹웨어 명칭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삼표 인재개발팀은 지난 8월 21일 ㈜삼표산업 풍납공장에서 홍성원 대표를 비롯한 전 레미콘 사업장 공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웨어 명칭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금번 그룹웨어 명칭 공모전은 계열사 간 결속력과 임직원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인재개발팀은 사내 응모를 통해 총 180개의 명칭 중 15개 후보를 선발, 이후 임직원 온라인 투표와 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상위 3개 명칭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삼표산업 인천영업소 권순현 사원의 ‘블루샘’은 그룹 이미지와의 연관성이 높고 그룹 사업의 성장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1등 상금 100만 원을 받은 권 사원은 “그동안 그룹웨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만든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인재개발팀 송희현 부장은 “앞으로 공모전을 비롯한 사내 프로그램을 확대해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MPYO 블루샘

㈜삼표 인재개발팀, ‘2016년 대졸 공채 T.O.P 과정’ 실시

㈜삼표 인재개발팀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2016년 대졸 공채 T.O.P(Travel Of Passion) 과정’을 실시했다. 경주 삼표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2016년 대졸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총 17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첫째 날은 인재개발팀이 ▲정기 정착화 방안 ▲회복 탄력성 진단 ▲직무 애로사항 개선 등을 강의했고, 둘째 날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 아카펠라 제작과 합창 수업을 하며 팀워크를 다졌다.

인사담당 최윤길 상무는 “2년 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이 지난 1년간의 직장 생활을 다시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직급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표 인재개발팀, ‘2017년 사원 Power-up 교육’ 실시

㈜삼표 인재개발팀은 경주 삼표연수원에서 9월 13~15일과 9월 20~22일 2회에 걸쳐 3년 차 사원 총 91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사원 Power-up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삼표기초소재㈜ 영업1팀 박은갑 과장을 비롯한 사내외 강사가 ▲브랜드 슬로건 내재화 ▲미래 커리어 비전 수립 ▲셀프 리더십 ▲업무 주도성 향상 ▲압화 드로잉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인사담당 최윤길 상무는 “이번 교육은 직장인 369증후군을 극복하고, 3년 차 사원에게 요구되는 주도적 업무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셀프 리더십과 분석적 사고 역량을 함양해 이들이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삼표산업 품질경영본부, 삼표그룹 품질경영 워크숍 실시

㈜삼표산업 품질경영본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삼표연수원에서 ‘시너지 창출 및 동반성장’을 위한 품질경영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삼표그룹 전 사업장의 품질 담당자를 비롯해 품질경영본부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각 사업부 품질기획팀은 품질 현황과 중장기 목표를 공유했다. 또 품질 담당자들은 분임조 활동을 통해 상황별 클레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장 품질관리 의식 강화와 품질관리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품질경영본부 박민용 상무는 “이번 워크숍이 품질경영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 확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고객의 요구에 신뢰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 하청 해고 노동자 정규직 복직 조인식 개최

㈜삼표시멘트는 지난 9월 20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삼표시멘트 최병길 사장,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안영철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39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데 합의하고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시멘트 업계 최초의 정규직 전환 사례로, 이날 조인식을 통해 삼표시멘트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1심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다. 앞으로 노조는 지급, 호봉, 근속 연수를 비롯한 직접 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고 오는 16일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된다.

㈜삼표시멘트 최병길 사장은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기 전에 해고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왔고, 결국 상생 차원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조인식을 기점으로 노사가 화합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표시멘트 자원봉사단, 노인 요양 시설 봉사활동 실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임직원으로 구성된 삼표시멘트 자원봉사단이 지난 7월 15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척공장 임직원을 비롯한 임직원 가족 20여 명이 참석해 삼척공장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쌀과 생산2팀 임이규 기사가 기부한 식료품을 전달했다. 또 요양원 주변을 돌며 잡초 제거와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했으며,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개의 평상을 손수 제작해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엔지니어링팀 장동권 부장은 “사업장 근처에 위치한 요양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방문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했었다”며 “공장 임직원들이 만든 평상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삼표시멘트 자원봉사단은 2006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한 공로로 삼척시 진주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경한

㈜경한 포항사업소, 사랑의 무료 급식 봉사활동 실시

㈜경한 포항사업소 임직원이 포항시 남구 소재 급식소에서 ‘사랑의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약 10명씩 총 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저소득층 어르신과 독거노인을 위한 배식 봉사와 설거지, 뒷정리 활동 등을 했다.

㈜경한 박영동 대표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서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경한 포항사업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 무료 급식 봉사’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과 KBS 포항방송국,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공동 주관했으며 ㈜경한 포항사업소는 작년부터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삼표해운

㈜삼표해운, 리나호 취항식 및 명명식 행사 개최

㈜삼표해운은 지난 7월 11일 부산 감천항 2부두 1번석 리나호 선상에서 리나호 취항식 및 명명식 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리나호 취항식은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삼표해운 정진호 대표를 비롯해 ㈜삼표시멘트 최병길 사장과 정대현 대표 등 15명의 임직원과 외빈이 취항식에 참석해 리나호의 신규 취항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서 ㈜삼표해운 정진호 대표는 “작년과 올해 출항한 유진호와 정진호, 진안호에 이어 우리 회사의 네 번째 직영 선박인 리나호의 명명식과 취항식을 거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총 4개의 직영 선박을 운영해 전국 권역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나호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시멘트 물량 운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간의 개조 공사 끝에 항해 준비를 끝마쳤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신입 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남동레미콘	광주영업소/공장 관리과	이창현	사원	2017-07-17
	건조고화팀/현장	박경욱	사원	2017-08-07
㈜네비엔	단양관리팀	송은경	사원	2017-09-04
	당진Slag팀	최재욱	사원	2017-07-10
㈜삼표	대체연료수급팀	배다현	사원	2017-09-04
	D/T팀	황승범	사원	2017-08-01
	D/T팀 남서물류영업소	임혁	사원	2017-08-21
	경영개선팀	김명창	사원	2017-07-17
	법무팀	박민기	사원	2017-09-01
㈜삼표산업	업무분석팀	임예원	사원	2017-07-03
	PE TF팀	김수진	사원	2017-07-10
	RMI팀	이영훈	사원	2017-08-16
	김포공장 품질과	박덕근	사원	2017-07-03
	대전공장 품질과	이병승	사원	2017-07-03
	물탈신사업팀	박대훈	사원	2017-07-10
	서부공장 관리과	공기훈	사원	2017-07-03
	성수공장 관리과	정순교	사원	2017-07-03
	성수공장 품질과	이기선	사원	2017-07-03
	양주공장 품질과	이장용	사원	2017-07-03
	여주공장 품질과	장주필	사원	2017-07-03
	인천물탈공장 생산팀	김성준	사원	2017-09-01
	재무팀	김종암	사원	2017-09-01

경력 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경한	영업2팀_울산	엄진용	차장	2017-08-16
	영업2팀_포항	김진선	사원	2017-07-10
㈜네비엔	회계팀	이석우	대리	2017-07-03
	개발2팀	이진형	과장	2017-08-28
	단양생산팀/현장	김창근	사원	2017-08-07
	단양정비팀/현장	백찬기	사원	2017-07-03
	영업1팀_서대구	주현준	사원	2017-08-07
㈜삼표산업	포항공장 관리과	도관수	대리	2017-07-10
	포항공장 생산팀	김선명	대리	2017-08-08
	계량사업소	장호철	주임	2017-08-21
	김해물탈공장 건설팀	권순일	과장	2017-08-24
	물탈생산운영팀	이호철	과장	2017-07-10
	물탈영업2팀	정진경	사원	2017-07-10
	아산공장 관리과	이대덕	주임	2017-09-01
	안성공장 관리과	오은철	주임	2017-08-03
	양주공장 관리과	이울	사원	2017-06-23
	용인공장 영업과	임환우	과장	2017-08-02
	인천공장 관리과	황진욱	사원	2017-07-10
	풍납공장 관리과	강동수	사원	2017-07-03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삼표산업	충주공장 품질과	김민우	사원	2017-07-03
	화성공장 관리과	김정규	사원	2017-08-14
㈜엔알씨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오성원	사원	2017-07-17
㈜팬트랙	연천사업소 관리팀	김솔미	사원	2017-07-10
㈜네비엔알이씨	연마유지보수팀	최강훈	사원	2017-06-23
	성형설비브릭팀	최성현	사원	2017-08-07
㈜당진에이치이	생산팀_현장	김형호	사원	2017-07-01
	생산팀_현장	이명룡	사원	2017-07-18
삼표기초소재㈜	생산팀_현장	조영권	사원	2017-07-18
	당진Slag공장 생산팀	박철환	사원	2017-09-04
	당진공장 품질과	김유충	사원	2017-07-03
삼표레일웨이㈜	안성정비	강진석	사원	2017-07-10
	PST제천공장 생산팀	오동진	사원	2017-06-23
삼표피앤씨㈜	PST제천공장 생산팀	이만규	사원	2017-06-23
	PC/PILD공사팀	정지호	사원	2017-08-21
	여주공장 관리팀	이훈규	사원	2017-08-09
	제천공장 생산팀	김원겸	사원	2017-09-08
	제천공장 생산팀	장명수	사원	2017-08-04
㈜삼표시멘트	청주공장 관리공무팀	유소연	사원	2017-08-18
	청주공장 생산팀	문자수	사원	2017-07-03
	회계팀	최재원	사원	2017-09-01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조진홍	주임	2017-09-04
	환경안전팀	김낙현	차장	2017-08-16
㈜팬트랙	연마유지보수팀	정인철	사원	2017-07-18
삼표PC엔지니어링	구조팀	최재훈	과장	2017-06-23
	당진Slag공장 생산팀	강대국	주임	2017-07-03
삼표기초소재㈜	당진Slag공장 생산팀	김판길	주임	2017-07-10
	양주정비	김동수	사원	2017-07-03
	이동정비	김동훈	사원	2017-07-10
삼표피앤씨㈜	화성정비	이현우	사원	2017-07-03
	제천공장 생산팀	안종근	사원	2017-09-04
	청주공장 생산팀	이성문	사원	2017-07-03
	청주공장 시설팀	백승훈	사원	2017-07-03
	구매팀	박성훈	과장	2017-09-06
㈜삼표시멘트	기계팀	이종현	차장	2017-07-01
	인사총무팀	김영	차장	2017-08-01
	인사총무팀	김준수	선임사원	2017-08-01
	인사총무팀	이춘혜	사원	2017-08-21
	전북영업팀	강민룡	과장	2017-07-01
	해운관리팀	양승하	선임사원	2017-06-08



독자 퀴즈

다음은 꿈과 상상력을 중시한 화가의 말입니다. 입체주의 미술의 창시자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Everything you can imagine is real”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

by 피카소

입체파의 대가인 이 사람은 형식과 시대를 초월한 새로운 화풍으로 20세기를 풍미한 거장 중의 거장으로 손꼽힌다.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화가로도 알려져 있는 그는 향년 92세로 별세할 때까지 작품 활동에 매진했으며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우는 여인’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상상력을 잃은 현대인에게 참신한 인사이트를 준다. 올가을에는 삼표 가족들의 일상에도 상상력이 만드는 다채로운 색이 깃들기를 바란다.

✉ 빈칸을 채워서 11월 20일까지 이메일 [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 원권을 드립니다.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산 속



당첨을 축하합니다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영업팀 민성호 사원

㈜삼표 총무팀 나경아 대리

삼표기초소재㈜ 예산사업소 이종삼 부장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품질팀 이태훈 과장

㈜알엠씨 군산공장 관리과 채소라 대리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삼표 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

김선영 사원 sy_kim@sampyo.co.kr

레미콘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운영팀

박종필 사원 pjp1027@sampyo.co.kr

골재 ㈜삼표산업 남서영업소

장성현 대리 clzls77@sampyo.co.kr

철도 삼표레일웨이㈜ 경영기획팀

전지혜 사원 jjh6906@sampyoenc.com

건설 삼표피앤씨㈜ 콘크리트기획팀

이소영 사원 sso4942@sampyoenc.com

분체 삼표기초소재㈜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철스크랩, 환경자원 ㈜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sdu2004@neven.co.kr

IT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dbswls1208@sampyoins.com

물류 ㈜삼표 신규영업팀

황영만 대리 poireo@sampyo.co.kr

시멘트 ㈜삼표시멘트 경영관리팀

이재우 대리 jaewoo2.lee@sampyo.co.kr